

한경희 6관왕 명중

(순천여고)



와 조를 이뤄 4천50 점(4천320점 만점)을 쏴 금메달을 추가해 지난 2004년 박성현(25·전북도청)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종별양궁 6관왕 영예를 안았다.

한경희는 구례여중 3학년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초반 2위로 나서며 '소녀신궁' 과에자(16·대전체고)와 함께 중학생 돌풍을 일으켰지만 16명을 뽑은 2차 선발전에서 18위에 그쳐 태극마크는 달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었다.

단체전에서도 한경희는 최지연(3년)·김민정(1년)·장진주(1년·이상 순천여고)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체질 개선

체전 개최 앞두고 '전문성' 위주 조직 개편

體育史 정비...올림픽 메달리스트 파악도

전남도체육회가 제89회 전국체육대회 170여일을 앞두고 사무처 직제 개편, 체육진흥 자문단 구성 등 전남체육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전남체육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사무처 조직 안정화 유사업무 중복부서 통폐합을 위해 그동안 1차 3부(사무처장, 총무부, 운영부, 훈련부)에서 1차 1차장 2부팀(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부, 운영부)으로 바꾸고 효율을 높이는 체계적 조직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상임부회장 직제 폐지로 인한 사무처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또 전남지역 대학교 전공 분과별 교수 6명과 스포츠 분과·응용능력 현장관계자 및 지도자 3명 등 9인의 '체육진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전남체육 진흥 방전 계획 및 체육행정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원회는 새로운 전남체육 진

흥 정책 개발 수립 및 전남 체육진흥 각종 학술 지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 ▲체육인 자정운동을 통한 자긍심 고취 ▲급변하는 체육환경 대처 ▲승부를 결정짓는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 함양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 한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 체육인들의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남도체육회는 전남체육사 재정립을 위해 전남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 소재지 파악과 현황판을 작성하는 등 '전남체육사' 발간 기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체육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를 갖고, 체육인들의 자질향상, 집중과 효율을 위한 행정을 통해 '변화된 전남도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11:00·XPORTS)

▲2008 유소년 축구(14:10·KBS1)
▲2008 프로야구(삼성: SK)(18:00·KBS N SPORTS)(KIA: LG)(18:10·SBS스포츠)(롯데: 두산)(18:30·MBC ESPN)(한화: 우리)(18:20·XPORTS)



최경주와 레티프 구센이 'SK텔레콤 오픈 2008' 출전을 앞두고 15일 오후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클럽에서 열린 연습라운딩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미국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2008 시즌
초반부터 관세를 굳혀 버린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의 납은 목표는 무엇일까?

올 시즌 5개 대회에 나와 4개의 우승컵을 쟁진 오초아가 1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긴 리유니언 골프장에서 열리는 긴오픈에서 LPGA 투어 최다 연승 기록을 위한 칭검다리를 놓는다.

LPGA 투어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5승. 뉴시로페스(미국)가 1978년, 안나카 소렌스탄(스웨덴)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이 기록을 세웠다.

지난 달 말 세이프웨이클래식에서 우승한 오초아는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코로나 챔피언십을 잇따라 제패하며 3연승을 했고 긴오픈에서도 우승 후보로 순위다. 올해로 3회가 되는 긴오픈은 총상금 260만달러에 우승 상금 39만달러가 걸린 특급대회로 오초아의 연승을 저지하기 위해 상위 랭커들이 대거 출전한다.

멕시코에서 열렸던 코로나 챔피언십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소렌스탄과 수잔 페더슨(노르웨이), 폴라 크리머(미국), 카리 웹(호주) 등 세계 랭킹 2~5위까지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초아의 위세에 놀려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국 자매들도 초대 챔피언 김미현(31·KTF), 명예의 전당 멤버 박세리(31)를 비롯해 올 시즌 LPGA 투어에 진출한 새내기들이 도전장을 냈다.

순천시청 조성제·서민규

亞 정구선수권 국가대표

조성제·서민규(순천시청)가 제6회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파견 및 한국대표선수 본선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조성제와 서민규는 지난 11일부터 경북 문경시민경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복식 1위를 기록해 가장 먼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순천남초, 순천삼산중, 순천매산고 선·후배 사이인 조성제(29)·서민규(31)는 지난 2002년부터 복식조를 이뤄 이번대회까지 10여 차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김경태(22·신한은행)도 명예 회복을 노린다.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올해 안정감

이 돌보이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 그

리고 후원사가 주최한 대회에서 재기를 노

리는 홍순상(27·SK텔레콤)과 김형태(31·

테일러레이드)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 탱크' 국내서 재충전

최경주 내일 KPGA SK텔레콤 오픈 출전

마스터스 부진 털고 구센과 정상 다툼 관심

세계골프랭킹 6위에 올라 있는 '완도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의 '명품 페어드샷'

이 한달 만에 다시 국내에서 펼쳐진다.

최경주는 17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골프장 오션코스(파72·천275야드)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특급

출전한다.

총상금 6억원에 우승 상금 1억2천만원인 SK텔레콤오픈은 매경오픈, 한국오픈, 신한 등에오른 등과 함께 한국프로골프에서 특급

대회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2008년 한국프로골프 코리안 투어의 실질적인 개막전 역할을 맡았다. 코리안 투어는 지난 3월 중국 상하이에서

KEB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한데 이어 이달 초

일본에서 에머슨피스피오픈을 치렀지만 국

내에서 여는 대회는 SK텔레콤오픈이 처음

이다.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SK텔레콤은 부찌 올라간 국내 골프팬들의 눈높이를 감안해 단골 초청 선수인 최경주와 함께 US오픈을 두차례나 제패한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 두 명의 세계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를 불러들였다.

2003년과 2005년 두차례 우승컵을 차지하는 등 이 대회와 인연이 깊은 최경주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가 끝나자마자 귀국길에 오르는 강행군을 감수하며 대회

통산 세번째 우승에 대한 의욕을 과시했다.

마스터스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그친 최경주는 SK텔레콤오픈 정상 탈환으로 팬들의 실망을 달랠겠다는 다짐이다.

최경주와 동행한 구센은 지금은 세계랭킹이 28위까지 치쳤지만 한때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이상 미국), 비제이 싱(피지), 어니 엘스(남아공)와 함께 '빅5'에 굽혔던 슈퍼스타. 지난 2006년 한국오픈에 이어 2년 만의 방한이다.

최경주와 구센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이에 맞서는 토종 선수들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작년 우승자 배상문(22·캘리웨이)은 개막 전 KEB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시즌 두번째 우승으로 상금왕과 디승왕이라는 목표 달성을 디딤돌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장타력에서는 최경주와 구센에 밀리지 않는 배상문은 겨울 동안 아시아 투어에서 깊고 낮은 쇼트 게임 실력을 보태진다. 이를값이 주눅들지 않는 배짱을 내세워 대회 2연패를 자신하고 있다.

지난 7일 끝난 에머슨피스피오픈에서 긴 슬럼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인 김경태(22·신한은행)도 명예 회복을 노린다.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올해 안정감이 돌보이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 그리고 후원사가 주최한 대회에서 재기를 노리는 홍순상(27·SK텔레콤)과 김형태(31·

테일러레이드)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140, 02-101-010-02-2522

(광주부동산부동산, 대인동 산서면 1번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 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234-8216 훈 011-609-0896

(광주부동산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02-383-5221 훈 011-609-5221

(구상무부동산)

▶빌딩

• 대지 600 건물 1,352 보석/월세 3,100만 원 지역별 고상가/상점 12개면 7,700㎡(400평)

• 대지 230(70평) 5층 18평

• 대지 165(50평) 4층 23평

• 대지 132(40평) 3층 10평

• 대지 105(30평) 4층 8평

• 대지 80(20평) 4층 6평

• 대지 65(15평) 4층 4평

• 대지 50(10평) 4층 3평

• 대지 35(8평) 4층 2평

• 대지 20(5평) 4층 1평

• 대지 15(4평) 4층 1평

• 대지 10(3평) 4층 1평

• 대지 5(2평) 4층 1평

• 대지 3(1평) 4층 1평

• 대지 2(1평) 4층 1평

• 대지 1(1평) 4층 1평

• 대지 0(0평) 4층 1평

• 대지 0(0평) 3층 1평

• 대지 0(0평) 2층 1평

• 대지 0(0평) 1층 1평